



제목	Orientalism in Lord Byron's 'Turkish Tales'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Edwin Mellen Press
발행일	1995. 8. 1.
저자	Abdur Raheem Kidwai
출판도시	Lewiston
페이지수	304
ISBN 또는 ISSN	978-0773489882

내용 요약

이 책은 바이런 경의 터키 '이야기들' 속에 나타나는 오리엔탈리즘에 관한 연구를 집대성한 것이다. 바이런 경은 터키 설화를 오리엔탈리즘에 입각하여 해석함으로써 영문학사에서 동양 문화에 대한 색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폭넓은 이해를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또한 바이런의 이러한 시도를 통해 그때까지 영문학사에서 답습해 오던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기존 방향과 관점을 반성하게 되었고, 동양을 이해하는 새로운 기반이 조성되었으며, 향후 동서양문학의 공존 가능성이 다소나마 확보되었다.

바이런은 독특한 방식으로 동양인의 삶을 심도 있게 이해했고, 동양과 서양이라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예리하게 통찰했으며, 동양을 이해하는 자신의 독특한 방법론을 모색하고 정립하기 위해 동양적인 근원, 어법, 동양에서 사용하는 직유와 은유법, 그리고 또 다른 비유적인 특성을 꾸준히 연구했는데, 특히 터키 이야기 해석에서 이러한 바이런적인 특성이 잘 드러난다. 「자우르, 터키 이야기 단편」(1813), 「아비도스의 신부, 터키 이야기」(1813), 「코세어」(1814), 「코린드의 포위」(1816)는 소위 바이런 경의 '동양 이야기'로 알려져 있고 이 작품들은 전부 이슬람 문화권인 터키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모두 서양의 동양 침략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 책에서는 바이런의 오리엔탈리즘과 로버트 소티, 토마스 무어 같은 동시대 사람들의 동양주의를 비교해 놓았는데, 전자와 후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이런이 이 두 사람에게 비해 훨씬 더 동양을 존중하고, 동양의 문화를 높이 평가했으며, 동양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다. 또한 다섯 개로 구성되어 있는 부록으로 우리는 '터키 이야기' 관련 주요 데이터베이스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고 주제 관련 일반적인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는다.